북한의 고등교육

[2]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손 계 림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

북한의 고등교육은 일반 고등교육 체계와 성인 고등교육 체계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고등교육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이며, 성인 고등교육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이다. 일반 고등교육에 속하는 대학은 입학과 교수과정, 졸업이 비교적 엄격한 편인 데 비해서 성인 고등교육에 속하는 대학은 그것이 비교적 느슨하다. 여기에서는 일반 고등교육 체계에 속하는 대학의 입학, 교수과정, 학위제도를 살펴 보기로 한다.

북한의 고등교육
1.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과 유형
2.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 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3. 김일성종합대학의 발전과 현황
4.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과학기술 교육
5. 김형직사범대학과 교원양성
6. 고등전문학교와 직업기술 교육
7. 공장대학과 성인교육

1. 입학제도

북한의 대학 입학제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다. 입학제도의 변화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추천을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둘째는 시험 성적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추천을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진 시기는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해당하며, 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1980년대 이후이다. 이 두 시기로 구분하여 입학제도의 변화 과정과 현재의 실태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추천 중심 전형 시기

해방 직후 북한은 고등교육 기관이 전무하였으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변호사, 의사, 교원 등 전국적으로 12명에 불과하였다.[1] 그리하여 사회주의 혁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을 설립하고 혁명의 전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였으며, 이어서 각 전문 분야에서 대학을 설립하였다.

북한은 1945년 11월에 대학건설기성회를 결성하였으며, 1946년 7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대학을 설치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법령 40호를 발표하였다. 이 법령의 서문에서 김일성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민 경제와 문화를 건설할 지도력 있는 고등기술인들을 발달시키는 것을 중요시하여 대학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김일성대학은 기존의 평양의과전문학교와 대동공업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서 단기간 내에 창설 작업을 착수하였다. 설립 당시의 입학자격은 대동공업전문학교 2학년과 평양의과전문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대학 1학년 입학 자격을 주었으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노동자, 농민 자녀들은 3년제 예과를 두어 그 과정을 이수한 후에 입학하도록 하였다.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북한의 대학 입학제도는 주로 추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별로 입학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학 자체의 전형을 통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데,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성분, 조직 생활, 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먼저 대학의 입학 자격을 보면 ① 가족 및 친척의 환경과 출신 및 사회 성분이 '적대계층'에 속하지 않는 자, ② 고등중학교 졸업자, ③ 만경대학원, 유자녀학원 등에서 11년제 교육을 마친 자, ④ 고등중학교 정도의 성인교육을 마친 자 등이다.[2] 특히 교원대학의 입학자격은 정치 사상성과 품성을 중시하고 있다. 즉, ① 고등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덕·체를 갖춘 사람, ② 고등중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사회정치 생활에서 모범적이며 지·덕·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형 절차를 보면 지원자의 소속 기관은 6월 25일까지 지원서를 시군 행정위원회 대학생 모집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입학원서, 학력증명서, 소속 기관 또는 학교 책임자와 사로청 조직의 공동추천서, 신체검사표 등이다. 이러한 서류를 대학 지원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농장 또는 공장, 학교 책임자가 작

1) 김창호, 『조선교육사』(3), 조선사회과학출판사, 1990, 116쪽.
2)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1278쪽.

성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위원회 대학생 모집처에 제출한다.

지원 당시부터 사실상 할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행정위원회나 소속 기관 또는 학교에서는 자기 해당 지역의 할당 인원을 배정받아 그 범위 안에서 추천하게 된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추천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개별 대학에서는 전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각 대학의 입학시험 시기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해당된다.

입학시험 과목은 학교별로 전공과목에 따라 필답고사와 면접으로 구성된다. 사회과학 분야는 당정책사, 국어, 외국어, 수학, 체육, 물리, 기타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자연과학 분야는 당정책사,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체육, 기타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원대학의 경우 공산주의 도덕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필답고사는 주로 주관식으로서 논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필답고사에 이틀 정도, 면접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고등중학교 졸업 당해 연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직통생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당과 행정 기관의 간부 자제이거나 특별히 수재로서 능력이 인정된 학생들이다. 둘째는 제대 군인으로서 고등중학교 졸업 후에 군대에 입대하여 2~5년간 복무한 자로서 군대 내의 당 책임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다. 셋째는 직장 근무자인데, 이들도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에서 2~5년간 근무한 자로서 직장 당 책임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1970년대까지 이들 세 부류의 비율[3]은 제대 군인 70%, 직통생 10% 정도, 직장 근무자 20% 정도로서 제대 군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제대 군인에 대하여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직접 진학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졸업생들 가운데 대학 진학의 통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군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국가자격고사의 실시

1979년까지 북한은 추천제를 중심으로 대학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였다. 대학별 시험을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당 간부의 자녀 등 출신 성분을 위주로 하여 대학 입학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추천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천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안게 되었다. 첫째는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는 출신 성분을 중심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1980년부터 대학입학 예비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자격고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4] 국가자격고사는 매년 3월 정무원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당해 연도 졸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 성적을 기초로 하여 대학별 지원자를 추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 시험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고등중학교 재학생이든, 군인 또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학 지원과정에서 추천 대상이 될 수 없다.

3) 위의 책, 1279쪽.
4) 위의 책, 1280쪽.

1980년대에는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의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있다.[5] 1980년대 이전에는 북한 대학의 신입생은 제대 군인과 직장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습 수준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입학생들 가운데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대학에서 학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을 만한 기초 실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습 수준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대학의 전형 절차는 모든 지원자들이 국가자격고사를 치르고 난 후, 대학과 군대, 직장에서는 각 지역별로 할당된 대학 지원자 수에 따라 시험 성적, 출신 성분, 조직생활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별로 추천하게 된다. 각 지역 행정위원회의 대학생 모집(지방의 교육행정 조직은 일반 행정 조직에 속해 있음)은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수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한다. 이리하여 지원자들은 대학별로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고 대학은 다시 대학별 시험 성적, 출신 성분, 조직 생활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수영재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제1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국가자격고사를 치르지 않고 직접 개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중심대학(지난 호에 설명하였음)을 중심으로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학교육 개혁 가운데 대학생의 선발 방법에서 학생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자격고사를 실시하면서 대학은 입학생의 선발과정에서 학습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심대학은 학생의 학습 능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 군인과 직장인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다. 국가자격고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대학 입학자 가운데 제대 군인과 직장인의 비율은 20~30% 수준이며, 평양 소재 중심대학의 경우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6]

또한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중심대학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비과정을 설치하고 있다.[7]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1년간의 예비과정을 거쳐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예비과에서는 정치사상 교육을 비롯하여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과 외국어 과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제1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예비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과에 입학할 수 있다. 제1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신입생들은 1년의 예비과를 마친 후, 시험에 합격한 학생만이 본과에 진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신 성분과 조직생활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모든 대학의 입학 과정에서 여전히 출신 성분과 조직 생활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5) 손계림, "북한 교육의 발전 과정과 최근의 개혁 동향(2)", 『교육개발』, 98호, 1995년 11월호, 한국교육개발원, 103쪽.
6) 귀순학생 동영준의 증언.
7) 손계림, 앞의 글, 104쪽.

중심대학은 북한 사회의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출신 성분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김일성대학을 비롯한 중심대학은 입학생의 선발과정에서 지원자 개인의 신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한다는 것이다. 각 대학의 교직원들은 입학생의 출신 배경, 사상과 품성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거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 인척 관계 그리고 학교 생활과 조직 생활에 관하여 세밀하게 조사한다.[8]

따라서 북한의 대학 입학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학습능력과 더불어 조직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충성도 그리고 출신 성분이라는 귀속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또한 선발과정에서도 학생들의 능력과 자율적인 선택이 반영되는 개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선발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소속 기관의 추천과 지방 행정 당국의 추천이라는 이중적인 관문을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대학의 학사 운영

북한의 대학은 군사 조직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운영되고 있다. 대학의 교수 조직과 학생 조직은 당 정책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엄격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엄격한 조직으로 구성된 대학에서 학생들은 공산주의 사상교양을 철저하게 교육받는다.

1) 교수 조직

북한의 교수 조직은 총(학)장, 대학 당위원회, 학부장, 강좌장, 일반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수 조직은 위계가 분명한 명령 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수 조직을 통하여 대학의 운영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통제, 검열하고 있다.

대학에서 대학 당위원회는 대학의 중요한 모든 사항을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철저하게 집행되고 실현되도록 지도하고 통제한다. 특히 정치사업과 사상교양에 관한 방침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는 학장도 "당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대학의 행정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휘하는 행정책임자[9]이며, 대학 행정사업에 대한 대학 당위원회의 결정은 대학에서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당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학장의 임무는 교직원과 학생의 정치사상을 확고히 하고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동시에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북한의 『대학관리규범』(대학편)에서 학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요지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확고히 지니고 철저히 관철할 것, ② 교직원과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충직한 혁명전

8) 귀순학생 동영준의 증언.
9) 교육위원회 편, 『대학관리규범』(대학편),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80, 7쪽.

사로 키울 것, ③ 교수·교양사업과 자질 향상 및 과학 연구사업, 후방 경리사업을 조직 지도할 것, ④ 대학교육 행정의 전반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할 것, ⑤ 교원들이 교수 준비를 잘 하고 교육 강령에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도록 지도 검열할 것, ⑥ 과정안, 교수 요강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도할 것, ⑦ 학생들의 과외 생활, 정치 조직 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할 것, ⑧ 통신·야간·공장 대학의 교육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할 것, ⑨ 교과서, 교재, 참고서와 강의안, 지도안을 검열하고 지도할 것, ⑩ 대학생 모집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학생들의 진급과 유급, 출퇴학과 졸업, 기사·전문가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업을 지도할 것, ⑪ 시범상학, 학습토론회, 경험발표회, 강습, 현장파견 등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할 것."[10]

대학의 학장 밑에는 교무부학장, 과학부학장, 경리부학장이 있다. 교무부학장은 "대학의 전반적 교육행정 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지도를 책임지며 학장을 돕는 참모장으로 학장의 제1대리인이다."[11] 교무부학장의 임무는 대학 운영에서 당 정책과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일이며, 교무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일이다. 특히 당 정책을 구현하고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부와 강좌 그리고 각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교무부학장은 대학의 교육 강령, 과정안, 교수 요강을 지도 감독하며 집행하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과외 활동, 정치 조직 생활을 지도하고 집행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교무행정을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즉, 대학 입학시험을 지도하며, 진급과 유급, 출퇴학, 졸업, 기사 및 전문가 자격 시험과 관련한 심의 사업을 관장한다.

과학부학장은 "교원, 연구사들의 자질 향상과 과학 연구사업을 책임지고 지도"[12]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말하자면 과학부학장은 대학의 연구, 학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과학부학장이 담당하는 부속기관을 보면 과학연구과, 연구원, 연구소, 연구실, 학생과학연구소, 대학도서관 등이다. 또한 교원과 연구사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토론회, 경험발표회, 시범수업, 강습, 현장파견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며 학위논문 자격시험, 급수 사정시험, 국가시험을 직접 담당한다. 한편, 경리부학장은 대학의 지원 경리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일을 맡고 있다.

대학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학장 직속으로 있는 간부과, 조직계획과가 있으며, 교무부학장에 속하는 교무과, 통신교무과, 출판소가 있고, 과학부학장에 속하는 과학연구과, 연구원이 있으며, 경리부학장에 속하는 경리과, 건물관리과, 기자재공급과, 재정부기과가 있다. 이러한 부서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통합하거나 세분해서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의 교수 조직은 이러한 위계적인 명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장과 부학장, 학부장, 강좌장 그리고 교원이라는 위계 조직이 북한의 대학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별 교원들은

10) 위의 책, 8~14쪽.
11) 위의 책, 14쪽.
12) 위의 책, 20쪽.

강의 내용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급자의 심의와 검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교원들은 자신의 강좌에 대하여 교육 강령과 과정안, 교수 요강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상급자인 강좌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강좌장은 자신이 심의, 검열한 강좌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학부장에게 그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의 과정은 교무부학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학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장은 부학장으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매일·매주·매달·매학기 보고 받을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매일 보고 받을 사항은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 구현 사항, 교수 진행과 교수 규율 실태, 교직원의 출근 동태와 학생의 출석 상황, 학생들의 과외활동 상황, 대학의 경비 상태 등이다. 매달 보고 받아야 할 사항은 김일성의 교시와 당 정책의 구현 상황, 과정안의 집행 상태, 교원들의 교수 준비 상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 실태, 과학 연구사업 및 교과서·교재·참고서의 집필 실태, 학생들의 과외활동 상황, 실습공장과 농장의 사업 실적, 대학의 문화 위생관리 상태, 경리예산 집행 실태, 교직원들의 정치사상 생활과 건강 상태 등이다.

2) 학습 활동

① 대학생의 일과

북한은 지난 해까지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하고 2월에 후기 학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4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13] 북한은 지난 2월 5일자 "새 학년도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자"라는 『로동신문』 사설을 통하여 "올해부터 4월 1일에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만큼 새 학년도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새 학기를 4월로 변경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주장대로 "자연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조치"(『조선신보』, 3월 26일자)로 해석할 수 있다. 즉, 4월은 따뜻한 봄이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 학기를 시작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8월과 9월은 농사철의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해서 4월에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4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4월이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생일(4월 15일), 김정일의 원수 추대일('92년 4월 20일)이 있기 때문에 4월의 행사를 더욱 빛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강의는 여름철에 8시 30분, 겨울철에는 9시에 시작하여 90분짜리 세 강좌를 듣는 것으로 오전은 끝난다. 오후에는 자습시간과 당 및 사회단체 관련 활동 시간이다. 대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다. 교복과 교과서는 실비로 제공되며 기숙사 비용은 학생 개인 부담이다.[14]

북한의 대학생들은 9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나머지 10% 정도가 자기 집

13)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274호, ('96.3.30~4.5), 35쪽.
14) 이종각, "북한의 교육정책과 행정 및 고등교육", 황정규 외 편,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315쪽.

에서 통학하고 있다.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일과는 집단주의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다. 대체로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하여 밤 10시 30분 취침시까지 17시간의 하루 일과가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여지고 있다.[15] 기상 후 강의실로 나가는 7시 30분까지는 아침 운동, 주변 정돈, 아침식사 시간, 등교 후 오전 강의가 시작되는 8시까지는 30분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에 관한 독보회 시간을 가진다.

강의실에서 일과 중에는 집체 자율학습 시간이 들어 있으며 일일 생활총화라고 하여 하루 강의 시간 마지막 10분간에 걸쳐 그 날의 수강 태도를 평가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 식사 시간 전 1시간 20분 가량 휴식 등 개인 시간이 있으며, 생활총화 시간을 통하여 하루 일과에 대한 자아비판을 하거나 또는 사상강연을 듣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며 10시 30분에 일제히 취침한다. 과외활동으로는 이념적 서클은 없고 문예, 체육, 과학, 연극, 미술, 무용, 음악, 사진 등의 서클이 있으며, 이 중에서 합창, 대중무용, 체육 관계 서클이 활발한 편이다.[16]

②대학의 교과목 구성

북한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실험실습, 사회정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험실습과 사회정치 활동은 북한의 대학교육을 다룬 많은 글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목 구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교양 과목으로는 정치사상 과목과 일반적인 교양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 정치사상 과목은 사상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교육으로 보고 있다.[17]

교양이란 한 마디로 학생들의 사상 의식과 도덕 품성을 키우는 사업이다. 사상 의식과 고상한 도덕 품성을 형성시키는 것이 사상교양이며, 인간 개조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교양 과목으로서 김일성 주체사상 과목과 사회주의 관련 과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양 과목을 예로 보면 다음과 같다.

ㅇ 기초교양 과목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역사, 사회주의 헌법, 주체철학, 주체 정치경제학

ㅇ 공통기초 과목

외국어로서 영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 중 2개 언어 선택, 고등수학, 프로그램 작성법, 한문, 환경보호, 체육

이상의 과목은 학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기타 다른 대학에서는 수업 연한에 따라 수업 시간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이수 과목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전공 과목은 일반기초 과목, 전공기초 과목, 전공 과목으로 나눈다. 김일성대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역사학부 조선역사학과

(조선역사 전문가 양성)

15) 이종각, 위의 글, 315~316쪽.
16) 정연수, "김일성종합대학", 『월간 중앙』, 1989년 3월호, 445쪽.
17) 리병모 외 저, 『사회주의 교육학』, 김형직사범대학, 1988, 217쪽.

○ 일반기초 과목

원시사회사, 조선역사, 조선고고학, 세계역사

○ 전공기초 과목

조선사 사료학, 조선사 사료강독, 조선민속학, 조선철학사

○ 전공 과목

조선고대중세사, 조선근대사, 조선현대사 특강, 조선 정치제도사 특강, 조선 신분제도사 특강, 조선미술사 특강, 전공 특강

② 자동화학부 전자계산기학과
(전자계산기 전문가 양성)

○ 일반기초 과목

고등수학, 일반 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전자공학, 프로그램 작성법

○ 전공기초 과목

도학 및 제도, 확률 및 수리 통계학, 자동조종기본, 정보이론, 전자계산기 기본, 체계작성언어, 전자계산기 기초실험, 형식어이론, 술어이론학, 논리해로학, 체계프로그램, 정보구조와 자료기기

○ 전공 과목

전자계산기 구성방식, 논리언어기초, 정보교환, 전자계산기 주변장치, 전자계산기 실험, 극소형 계산기 결합체계

3. 북한 대학의 학위제도와 박사원(대학원)

북한에서 학위는 우리의 대학원에 해당하는 박사원을 통하여 수여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 학부 과정을 졸업하면 기사 또는 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며, 우리와 같은 학사 학위는 없다. 기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에 해당하며, 전문가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학위 수여제도와 그 변천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학위의 종류

① 원사

원사는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수여하는 학위로서 보통 50~60대의 원로급에게 수여한다. 중앙인민위원회 학위학직수여위원회가 연구사, 교수 중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사람에게 원사 칭호를 부여한다. 학문 분야별로 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없는 경우도 많다.

② 박사 학위

박사학위는 북한의 최고 학술 수준으로서 일종의 영예 칭호라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의 수여 과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박사원의 박사반 과정을 이수한 후에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과 저작을 발표하여 학위를 받는 경우이다. 박사원에는 박사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한 2년의 학술 연구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북한은 대학의 학사과정이 학점제가 아니기 때문에 박사반에서 일정하게 이수해야 할 과목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학술 연구 기간에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와 면접의 시험 과정을 거쳐서 합격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박사원을 졸업할 때 20~30명으로 구성되는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 학위는 정무원 산하의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부여한다. 박사학위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이론 연구와 과학실험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음으로써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획득할 수 있다.

③ 준박사학위

준박사는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후 박사원의 준박사반에서 3년 혹은 3년 6개월의 수학 과정을 마치고 학위 시험과 논문심사를 통과해야 수여된다. 준박사는 우리의 석사에 해당하는 학위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수준이 석사와 박사의 중간 정도라고 한다.

④ 특설 준박사반

박사원에는 1년 과정의 특설 준박사반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과정은 현직의 교수 또는 연구 사업에서 업적을 쌓은 교원과 연구사들이 이수하고 있다.

⑤ 통신 준박사과정

통신 준박사과정은 주로 연구사나 기사들이 현직에 근무하면서 통신과 출석 수업을 통하여 과정을 이수한다. 수업 연한은 3년 6개월 이상인데, 등록 첫 해에는 3개월간 등교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2학년은 4개월간, 3학년은 6개월간의 출석 수업과 논문 지도를 받는다. 우리의 특수 전문대학원 또는 계절제 대학원에 해당한다.

⑥ 후보 준박사

후보 준박사는 학위의 종류라고 할 수 없지만, 학부 학생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무시험으로 박사원의 준박사반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연구 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학부 3학년 과정에서 후보 준박사 칭호를 받는다면 대학 졸업 때 준박사 학위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

⑦ 연구사

연구사는 대학의 교직원이지만, 강좌를 담당하지 않으며 과학 분야의 연구 사업에만 종사한다. 즉, 대학의 연구소 또는 연구실에서 연구 사업에 전임으로 종사한다. 연구사는 연구조수, 연구사, 상급 연구사, 2급 연구사, 1급 연구사로 직위가 구분된다.

2) 학위제도의 변화

북한의 학위제도 변화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시기에 따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학위과정이 최초로 설치되면서 제도적인 정착을 이룩하는 단계로서 해방 이후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해방 후 1946년 10월 북한에 최초의 대학인 김일성대학이 설립된 다음, 1947년 5월 7일 김일성대학에 처음으로 연구원을 설치하여 44명의 연구원을 모집하였다. 초창기에는 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학부를 졸업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현직 교원이나 연구원을 대상으로 여기에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연구기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948년 10월에는 북한의 내각(1972년 정무원으로 개칭함) 결정에 따라 '국가학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학위조례'를 제시하였다. 국가학위위원회는 학술연구 사업에 업적을 쌓은 사람들을 추천하여 박사와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국가학위위원회는 1953년 국가학위수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당시에는 박사와 학사학위로 구분하였는데, 학사는 우리의 석사에 해당하는 학위이며 그 이후 1979년에 준박사라는 칭호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학위를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원에서 배출하도록 하였다. 1949년에는 연구원 규정을 두어 평양공대(김책공대), 흥남공대, 평양의대, 원산농대 등 4개 대학에 추가로 연구원을 설치하였으

며, 1950년에는 옛 소련에 250명의 연구생을 파견하였다.

1957년 9월에는 국가학위수여위원회를 국가학위학직 및 인민상수여위원회로 개칭하였으며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 위원회는 논문을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할 뿐만 아니라 논문, 저서, 연구 실적 등 학술적인 업적을 심사하여 학위를 직접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는 1960년대부터 1972년까지 해당하는 시기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건설에 적합하도록 학위제도를 변경하였다. 1961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연구원 제도를 기초로 하여 최초로 박사원을 설치하였다. 1962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학위학직수여조례'를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학직이란 교수와 부교수라는 칭호로서 공산주의 간부를 양성하는 데 공헌이 큰 교원이나 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한다. 1967년에는 연구원이 21개 설치되었으며, 박사원은 4개 대학에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연구원이 확대되면서 연구원생도 증가하였다. 특히 응용과학 분야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며, 통신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연구원생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박사원과 연구원에서 박사·학사 학위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셋째는 학위 과정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로서 1973년부터 1982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1973년에 '학위학직수여조례'를 개정하여 능력있는 청년 학자, 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 후 연구원생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82년까지 북한에는 27개 대학과 16개의 과학연구 기관에 연구원생과 박사생을 양성하는 과정을 두었다. 또한 당시에는 중국과 동유럽의 공업국가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한편, 1979년 9월에는 '현행학위학직수여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전의 '학사'라는 학위 명칭을 준박사로 개칭하였다. 개칭 이유는 남한, 중국, 일본에서 학사 명칭은 학부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학위로서 한자로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1983년 이후의 시기로서 1983년에 학위제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3년 9월부터 각 대학에 설치된 연구원은 준박사 양성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연구원은 대학의 교원과 연구사가 될 전문적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연수 기관으로 기능이 변화하였으며, 수학 연한은 2년으로 규정하였다. 박사원은 학위를 획득할 연구생을 양성하는 전문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우리의 대학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박사원 안에 준박사반과 박사반을 두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박사원에서 학술연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20, 30대의 젊은 학자와 과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한만길/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강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손계림/ 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교육학부를 졸업하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 유학하였으며, 현재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교교육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전후 한국교육 연구』,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 외 다수가 있다.